

“연일 쏟아지는 홈런포”...프로야구 홈런 페이스 ‘역대급’

現 50경기 기준 작년 79개→올해 132개 급증, 경기당 2.64개꼴
돌아온 빅리거·외인 거포·괴물 신인까지...홈런왕 경쟁 요동



위부터 SK 와이번스 김동엽, 제이미 로맥, 최정

개막전부터 연일 쏟아지는 홈런 포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밤낮 없이 경기장과 상하위 타선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터진다. 이 좁터면 투수들이 홈런 노이로제를 호소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KBO리그에서는 4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가 열린 가운데 총 132개의 홈런이 터졌다. 경기당 2.64개꼴 타구가 담장 밖을 넘어 가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50경기 기준) 79개와 비교하면 무려 53개(67%)나 급증했다. 10개 구단 체제가 된 2015년 이후 가장 많다.

장타율도 지난해 0.383에서 올 시즌에는 0.450로 크게 올랐다. 홈런뿐 아니라 큼직한 타구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보통 시즌 중 홈런은 날이 더워지면 더 늘어난다. 투수들의 힘이 빠지면서 구위가 떨어지는 반면, 타자들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감각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올 시즌 시범경기가 단축되고 개막이 앞당겨지면서 선수들이 일찍부터 컨디션을 끌어 올린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초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역대급’ 홈런 페이스다.

분위기에 따라 지난해 기록한 역대 한 시즌 최다인 1547홈런(경기당 2.15개)을 뛰어 넘는 것이 당연히 보인다. 수치상 1900홈런도 가능할 전망이다.

‘홈런 군단’ SK 와이번스는 올 시즌에도 무섭게 홈런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10경기에서 26개의

홈런을 생산했다. 1일 한화전에 이어 3일 KIA를 상대로도 6개의 홈런을 때려내 역대 최초 2경기 연속 6홈런 이상 신기록을 세웠다.

올 시즌 초반 홈런이 급증한 데는 ‘소총부대’ KT 위즈의 변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시즌 119홈런으로 팀 홈런 9위에 머물렀던 KT는 10경기 동안 22개를 때려 SK에 이어 2위다. 그야말로 환골탈태다.

지난해 170개를 때려낸 KIA 타이거즈는 19개로 페이스를 더 끌어 올렸다. 원주 홈런 군단의 시즌 심을 되찾겠다는 넥센 히어로즈도 17개를 터뜨리는 등 4개 구단이 홈런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박병호(넥센)와 김현수(LG), 황재균(KT) 등 빅리거들의 합류도 홈런 수 증가의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들은 8개를 합작하고 있다. 세 선수 모두 30홈런이 가능한 타자들이다.

거포형 외국인 타자들의 활약도 요인이다. 지난해 102경기에서 31홈런을 기록한 제이미 로맥(SK)은 최근 5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다. 88경기 18홈런을 때린 멜 로하스 주니어(KT)도 초반부터 방망이가 뜨겁다. 한화 새 외국인 타자 제라드 호잉도 9경기에서 3홈런을 기록해 파워가 돋보인다.

담장을 넘어가는 타구가 늘어나면서 20홈런 타자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홈런 타자는 25명이었다. 144경기를 치르기 시작한 2015시즌부터 20홈런 타자는 매년 30명을 넘지 않았다.

현재 2개 이상 홈런을 때려낸 타자는 33명이나 된다. 3개 이상 타자도 18명에 이른다. 시즌을 거듭하면서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20홈런 이상 타자가 3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홈런 숫자만큼이나 홈런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왼쪽), LG 트윈스 김현수



kt 강백호

왕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SK 김동엽과 로맥은 6개씩을 날려 홈런 부문 공동 선두다. 2년 연속 홈런왕 SK 최정도 5개를 때려 내며 3연패를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돌아온 홈런왕 박병호는 4개로 이

들을 바짝 추격 중이다. 로하스와 KT 괴물 신인 강백호 역시 4홈런으로 초반 페이스가 좋다.

2경기당 한 개꼴로 홈런을 생산해내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3월의 고타율을 기록 중이다.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꾸준한 홈런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오승환, 이제 제실력”...화이트삭스전 1이닝 2K 무실점

시즌 평균자책점 3.00서 2.25로

‘돌부처’ 오승환(36·토론토 블루재이츠)이 7회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완벽하게 봉쇄하며 제 뒷목을 해냈다. 5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 7회초 등판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3일 화이트삭스전에서 시즌 첫 실점(1이닝 1실점)을 한 오승환은 이날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며 제 모습을 되찾았다.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00에서 2.25로 낮아졌다.

2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1이닝 무실점을 올린 오승환은 시즌 첫 연투에 나선 3일 구속이 다소 떨어질 모습을 보여 우려를 사기도 했다.

존 기븐스 토론토 감독은 “시즌 첫 연투라 그런 것”이라며 크게 걱

정하지 않았고, 오승환은 이를 믿어 마운드에 올라 힘차게 공을 뿌리며 감독의 믿음에 화답했다.

4명의 타자를 상대로 17개의 공을 던진 오승환의 지구 최고 구속은 시속 92.5마일(약 148km)이었다. 삼진 2개를 잡았고,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3-3으로 팽팽히 맞선 7회 선발 애런 산체스의 뒤를 이어 등판한 오승환은 팀 앤더슨에 4구째 슬라이더를 던져 유격수 앞 땅볼을 유도했다. 후속타자 애덤 앵겔에 슬라이더를 공략당해 좌전 안타를 맞았다.

이어 요안 폰카다를 상대한 오승환은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한숨을 돌렸다. 초구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은 뒤 지구로 연신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오승환은 아비시일 가르시아도 삼진으로 속아냈다. 볼카운트 2B2S에서 시속 91마일짜리 몸쪽 높은 직구로 헛스윙을 유도했다.

토론토는 화이트삭스에 3-4로 졌다. 오승환의 후투로 3-3 동점을 유지한 토론토는 8회초 등판한 라이언 테페라가 선두타자 호세 에르베류에 좌중월 솔로포를 허용해 1점을 내렸고, 이후 만회점을 뽑지 못해 그대로 화이트삭스에 무릎을 꿇었다.

4연승 행진을 마감한 토론토는 시즌 3패째(4승)를 기록했다.

“오타니, 이 남자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인가?”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연일 괴력을 과시하고 있다. 오타니는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에인절스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경기에 8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 5회말 2사 2루에서 시즌 2호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오타니는 2경기 연속 홈런포를 포함해 5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첫 선발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던 오타니는 빅리그에서도 투타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0-2로 끌려가던 5회말 2사 2루에서 타석에 나온 오타니는 지난해 사이영상을 받은 클루버의 3구째 91.6마일(147km)짜리 직구를 통타해 동점 투런 홈런을 때려냈다.

USA 투데이는 “오타니가 사이영상 투수 클루버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렸다. 이 남자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인가?”라고 극찬했다. 에인절스의 마이크 소시아 감독도 “오타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에인절스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경기에 8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5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니가 괴력을 뽐냈다”고 칭찬했다.

동점 홈런으로 역전승에 기여한 오타니는 “2점차에 주자가 득점권에 있어서 1점이라도 따라붙고 싶었다. 타구가 펜스를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서 전력질주했다. 넘어가서 좋았

다”고 밝혔다.

2경기 연속 홈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작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인절스는 오타니의 동점포와 연장 13회말 잭 코자트의 끝내기 홈런을 앞세워 3-2로 승리했다.

박정환 천하, 한국 바둑랭킹 53개월 연속 1위

박정환(26) 9단이 53개월 연속 한국랭킹 1위를 지켰다. 5일 한국기원의 ‘한국 프로기사 랭킹’에 따르면 박 9단은 3월 한 달 동안 9승3패를 기록했다. 랭킹점수는 1만 70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김지석(29) 9단은 3월 한 달 9승4패를 기록하며 랭킹점수를 43 끌어올려 9818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4승4패로 부진한 신진서(18) 8단은 한 계단 하락한 3위, 5승4패의 이세돌(35) 9단도 한 계단 하

락해 4위로 내려갔다.

10위권 순위 싸움은 치열했다.

10승2패로 34점을 획득한 변상일(21) 6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위를 지켰고, 19기 맥삼기패배 결승에 올라있는 박영훈(33) 9단은 두 계단 올라와 6위에 랭크됐다.

7위는 한 계단 하락한 나현(23) 9단, 8위는 두 계단 오른 이동훈(20) 9단, 9위는 두 계단 하락한 안성준(27) 8단, 10위는 한 계단 하락한 최철한(33) 9단이 차지했다.

100위권에서는 JTBC 쉐리니재



치 2차에서 준우승한 허영호(32) 9단이 49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며 20위에 올랐다. 열 두 계단 상승해 68위에 오른 유병용(30) 5단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한국랭킹은 레이팅 제도를 이용한 승률 기대치와 기전 가중치를 점수화해 랭킹 100위까지 발표한다.

류현진 9일 등판 취소...다저스로테이션 조정

올 시즌 출발이 불안한 LA 다저스가 선발 로테이션 조정에 나서면서 류현진(31)의 등판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5일(한국시간) “다저스가 날씨와 최근 불펜 소모 탓에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클레이턴 커쇼가 9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등판한다”고 밝혔다.

다저스는 6일 휴식을 취하고 7~9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 3연전

을 치른다. 10일은 휴식일이다.

지난 4일 선발로 나선 커쇼는 5인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6일을 쉬고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야 한다. 하지만 커쇼가 너무 오래 쉴 경우 경기 감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다저스는 커쇼의 등판 일정을 지켜주기 위해 선발 로테이션을 전체적으로 손보는 것을 택했다.

3일 애리조나와 경기에서 연장 15회까지 가는 혈투를 벌인 것도 영

향을 미쳤다. 여기에 7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미에다가 오늘 경기에 등판하고 월 7일 선발 등판하면 류현진이 8일 샌프란시스코전에 등판할 수도 있다”며 “아니면 류현진의 등판 일정을 다음 주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에다는 이날 불펜에 대기했지만 등판은 하지 않았다.

CBS스포츠는 “7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 류현진이 선발 등판을 한 번 건너뛸 예정이다. 그러면 류현진이 불펜에 대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